

구광모, 내년 경영전략 수립 나선다

〈LG대표〉 AI 중심 미래 성장사업 본격화 전망

LG, 전 계열사 사업보고회 돌입
신사업 발굴·투자 우선순위 검토
글로벌 빅테크 협력 성과 구체화

구광모(左) LG대표가 전 계열사 사업보고회와 올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경영 전략 수립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사업의 실행 전략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LG는 19일부터 구 대표 주재로 전 계열사 사업보고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올해 경영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사업보고회는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전자 계열사를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등 화학 계열사, LG유플러스·LG CNS 등 통신·서비스 계열사 순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구광모 LG대표

LG는 올해 사장단회의에서 분기별 핵심 의제를 선정해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해 왔다. 3월에는 AI 전환(AX) 실행력, 6월에는 연구개발(R&D) 경쟁력, 9월에는 투자 전략 고도화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지난 9월 사장단회의에서는 AI 시대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AI 팩토리화·퍼지컬 AI, AX 등 핵심 분야의 투자 성과와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당시 구 대표는 “AI 미래 승부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장단이 빠른 속도와 집요한 실행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보고회에서도 이러한 논의의

이어가며 계열사별 미래 성장사업과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AI를 비롯한 핵심 분야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 경쟁력을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LG는 올해 엔비디아와 AI 팩토리·퍼지컬 AI·모빌리티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도 AI 인프라 전반에 걸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력의 후속 실행 방안과 계열사별 역할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별 계열사의 사업 역량을 그룹 차원에서 결집하는 ‘원 LG(One LG)’ 전략과의 일환으로, 관련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글로벌 파트너와의 단기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고, 미래 AI 핵심 승부처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여 앞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강북중로학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9일 실시된다.

/뉴스

청년층, 자기관리·여가 늘고 일·가사 줄어

데이터처, 10년전 대비 필수시간 16분 ↑

청년층의 하루 일과 가운데 필수 시간(수면·개인위생·외모관리)과 여가시간이 10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가사·돌봄 등 의무 시간은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생활시간조사’로 본 혼인 및 자녀 유무별 시간사용 변화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25~39세 청년의 필수 시간은 11시간25분으로 2014년 대비 16분 늘었다.

수면(8시간10분) 시간이 10분, 개인위생·외모관리(1시간28분) 시간이 14분 늘었다. 여가시간도 하루 4시간13분으로 2014년보다 21분 늘었다. 이에 반해 일, 학습, 가사 등 의무시간은 8시간22분으로, 10년 전보다 37분 감소했다.

성별로 필수시간은 남자가 11시간15분, 여자는 11시간37분으로 여자가 22분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는 남자보다 수면에 13분(남자 8시간3분, 여자 8시간16분), 개인위생·외모관리(남자 1시간23분, 1시간33분)에 10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시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 8시간22

분씩 사용했다. 일하는 시간은 남자가 1시간21분(남자 4시간55분, 여자 3시간34분) 더 길었지만, 가사·돌봄 시간은 여자가 1시간45분(남자 1시간3분, 여자 2시간48분) 더 많았다.

여가시간은 남자가 4시간24분, 여자가 4시간2분으로 남자가 22분 더 길었다. 남자는 게임·놀이(남자 57분, 여자 10분) 시간이 훨씬 길었다. 여자는 교제·참여(남자 41분, 여자 56분)와 실시간 방송 시청(남자 36분, 여자 45분)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별로 보면 기혼·유자녀 청년이 미혼·청년에 비해 가사·돌봄 시간이 길고 여가 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은 기혼·유자녀 청년이 3시간37분으로 기혼·무자녀(4시간49분)에 비해 1시간12분, 미혼(4시간26분)에 비해 49분 짧았다.

여가시간은 기혼·유자녀 청년이 3시간13분으로 기혼·무자녀(4시간7분)에 비해 54분, 미혼(4시간42분)에 비해 1시간29분 적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주요국 AI 통제 강화… 기술자립 핵심과제 부상

오늘 AI

中, AI 등 핵심기술 해외이전 제한
美, 첨단 반도체 중심 수출통제 나서
韓, 독자역량·글로벌 공급망 시험대

중국이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해 국내 AI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을 활용한 AI 개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술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확보와 서비스 개발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의 조치가 발표된 지 사흘 만에 한국 정부에서도 중국산 AI 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까지 AI 모델과 핵심 기술을 전략적 통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한국의 독자 AI 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중국, AI 핵심 기술 23개 통제… 신규 모델 확보 변수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AI와 바이오 의약, 태양광 분야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수출 금지 대상은 14개, 제한 대상은 26개다. AI 관련 기술이 2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AI 분야에서는 6개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17개 기술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국 정부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에는 초거대 AI 모델과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매개변수가 2조개 이상이거나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대규모 모델 관련 기술은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과 학술 논문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에서 제외된다. API 호출과 웹·앱 서비스 등을 통한 모델 이용도 수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핵심 기술을 해외 기업에 이전하거나 현지 인프라에 직접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관리가 적용될 수 있다. AI 서비스의 해외 이용보다 첨단 기술의 국외 이전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답시크·큐원 활용 확산… 국내 AI 개발 전략도 시험대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에 던지는 핵심 과제는 중국산 AI 모델의 사용 여부보다 향후 기술 접근의 지속가능성이다.

답시크와 알리바바의 큐원 등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은 높은 성능과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비용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기업들은 공개된 모델 가중치를 활용해 자체 AI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산업별 특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모델이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기술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 차세대 모델 확보와 추가 학습, 해외 인프라 배치 등에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성능 모델을 활용한 증류 학습은 원천 모델에 대한 접근 조건이 중요하다. 중국의 신규 모델 공개와 기술 이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경우 특정 모델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개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기존 공개 모델의 국내 사용을 곧바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최종 규제 범위와 기업별 기술 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 하정우 “중국 AI 의존 줄여야”… 독자 AI 전략 중요성 부각

중국의 발표 이후 한국 정부에서도 AI 기술 자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정우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폴스택 소비된 AI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중국의 기술 수출통제 움직임을 경계했다.

이어 “전력과 AI 컴퓨팅 인프라, 반도체, 프런티어 AI부터 핵심 산업의 AI 전환,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국가안보 영역까지 독자적인 역량과 글로벌 협력 기반의 투트랙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글로벌 모델과 성능을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첨단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은 AI 모델과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특정 국가의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글로벌 규제 변화가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제약할 수 있다.

중국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국내 AI 산업으로서는 최종 규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해외 모델 활용과 독자 기술 확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metro

오가노이드 기술, 역노화 ‘게임체인저’ 전망

≫ 1면 ‘노화, 운명 아닌 질병’서 계속

인체 장기를 모사한 오가노이드(Organoid) 기술도 역노화 신약 개발의 핵심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노화로 재생 능력을 잃은 장기에 건강한 오가노이드를 이식해 조직 장벽을 복구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연구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피부 오가노이드 기술을 고도화해 노화로 인한 탈모 치료, 진피층 재생 등 항노화 파이프라인도 개발 중이다.

◆ 치료제 상용화까지 과제 산적

역노화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 되고, 실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노화를 질병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역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화를 질병으로 공식 인정할 사례는 아직 없다.

특정 계층만 고가의 항노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빈부 차이에 따라 건강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윤리적인 우려도 남아있다.

항노화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 항노화 기술을 위한

별도 인증체계 마련, 생체나이 진단의 표준화, 장기데이터 축적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적 장치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항노화·역노화 기술의 효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기대나 허위 마케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보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역노화 기술이 단순한 혁신 기술을 넘어 의료비 절감과 생산력 회복에 기여하는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은 “고령친화산업, 스마트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정부 정책 등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수명연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일본, 미국, EU 등은 이미 항노화와 건강수명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국가와 민간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들과의 국제 협력뿐 아니라, 자체적인 항노화 기술주권 확보 전략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